

4대 금융그룹 분기 실적발표 임박

H지수 손실 반영... “ELS 익스포저 따라 순이익 크게 줄 것”

(위험노출액)

금융권, 실적하락 전망 우세
합산 순이익 3조9815억 추정
전년 동기대비 9000억 감소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 그룹이 이번주 1분기 실적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부분 전년에 비해 부진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으로 순이익이 9000억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KB 금융을 시작으로 26일 신한·하나·우리금융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올해 1분기 4대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4대금융의 1분기 순이익을 3조9815억원으로 추정했다. 1년전 과 비교해 9200억원(18.77%)감소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6조3347억원으로 같은 기간(6조6520억원)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홍콩 H지수 ELS 관련 손실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홍콩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은행들이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손실은 1분기 중 대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ELS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보유한 은행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그룹별로 살펴보면 KB 금융은 영업이익이 2조5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1조200억원으로 31.8%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9000억원에 달하는 홍콩 H지수 ELS 배상액을 적용한 결과다.

다만 시장전문가들은 ELS 배상액이 선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무난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분기보다 순이자마진(NIM)은 3bp(1bp=0.01%포인트)개선되고, 대출성장률도 0.8%를 기록할 것”이라며 “순이자이익은 3조3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한금융의 영업이익은 1조8764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6.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순이익은 ELS 배상액 3000억원이 반영되며 같은 기간

10.8% 감소한 1조237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이 늘며 영업이익이 늘었고, 1분기 순이자마진 또한 1bp 상승했다”며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90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ELS 배상액인 2000억원과 700억원 내외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한 결과다. 외화환산손실은 외화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원화로 환

산할 때 발생하는 회계상의 이익과 손실을 말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5년 외환은행과 합병하면서 외화자산·부채가 많은 상태다. 환율이 상승하며 외환부채의 평가액이 외화자산보다 늘어나 환차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200억원 정도의 회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최정욱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ELS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증권이 흑자전환하고, 유가증권 관련이익 등으로 9100억원 내외의 순이익을 시현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ELS 배상액이 100억원 이하이지만, 200억원가량의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순이익이 8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한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 배상이 진행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환차손으로 인한 1분기 실적하락은 예상했다”며 “조달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원화대출이 늘어 1분기 이익은 양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시민대표단, 절반 이상 ‘소득보장론’ 찬성”

연금특위 기자회견

최종 설문결과 발표... 소득보장론 우세
“연금개혁 시대적 과제, 지지 해주시길”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소득보장론’에 대한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설문 결과를 보고 받고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안 처리까지 이룰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3차) 설문조사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다루는 모수개혁 설문에서 소득보장론에 찬성하는 비율이 56.0%로, 재정안정론에 찬성하는 42.6%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론화 숙의토론회 전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공론화 숙의토론회 후 3차 최종 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다. 3차 신뢰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

첫번째 의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비율을 물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에 대해 얼마만큼 연금으로 대체되는 지를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뜻한다. 3차 최종조사에선 2안(소득대체율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40%, 보험료율 12%)보다 1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더 높게 나타났다. 1차에서 3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1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36.9%, 50.8%, 56.0%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차 조사때는 2안이 의미하는 재정안정론이 더 높은 찬성을 보였지만, 3차 조사에선 소득보장론을 뜻하는 1안이 2안과 13.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의무가입 상한에 관해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인상하자는 응답은 80.4%, 현행 60세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조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응답은 52.3%,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은 45.7%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지역연금과 관해서 시민대표단의 68.3%는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형평

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지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안에 시민대표단의 69.5%가 동의했고, 지역연금의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민대표단의 63.3%가 동의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7.5%가 동의했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대안은 92.1%가 동의했다.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대해서 시민대표단의 80.5%가 동의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91.6%가 동의했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1분기 화장품류 수출 23억 달러 ‘역대 최대’

전년동기대비 22% ↑... 美 시장 주요

K-뷰티 수출이 고전중인 중국 시장을 대신해 미국에서 급성장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시장 수출을 늘리는 한편, 중동, 아세안 등 수출 다변화에 총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장품류 수출은 23억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2021년 22억2000만 달러에서 2022년과 2023년 18억달러선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21.7% 상승하며 반등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1분기 대 중국 수출이 6억1200만달러로 가장 많지만,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화장품류 대 중국 수출은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48억8500만달러로 최고를 찍었으나, 이후 2022년과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를 기록한데 이어 3년 연속 감소가 예상된다.

반대로 대 미국 수출은 3억7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7% 급증했다. 화장품류 대 미국 수출은 2020년 6억4600만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44.6% 증가한 12억2200만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이밖에 1분기 화장품류 수출은 일본(2억4100만달러, +21.7%), 베트남(1억4500만달러, +24.4%), 홍콩(1억2200만달러, +12.3%) 순이다. 특히, 화장품류 수출국 상위 5개국 외 170개국 수출은 8억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다.

산업부는 K-뷰티 수출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으로 증가하는 한편, 중동, 아세안 등으로 다변화 전략을 모색

하고 있다고 보고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미주, 중동, 아세안 등 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유수의 뷰티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및 무역사절단 지원, 한류연계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 K-뷰티 분야에 1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중견·중소기업 대상 수출보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소비자 거점무역관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비용 및 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장벽 해소 등을 통해 해외 신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K-뷰티 화장품 수출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 70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K-뷰티 산업도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이날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해 K-뷰티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뷰티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업계 최초의 수출기업으로 최근 라네즈 브랜드를 필두로 아마존 등 글로벌 이커머스 등에서 입지를 확대하며 미국 시장에서 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소비자 맞춤형 파운데이션 제작 등 신기술을 접목한 뷰티 제품도 출시하며 소비자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